

# 원효, 일연, 최제우 그리고 장일순 프란치스코

• 정홍규

요즈음 야구가 한창이다. 8회 말이나 9회 말, 이기느냐 지느냐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에 팀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하는 투수가 있다. 야구의 구원투수는 그 팀의 승리를 지킬 수도 있고 오히려 한 점의 점수를 지키지 못해 패전투수로 순식간에 전락하기도 한다. 야구만 그런가, 메타포로 정치는 어떤가? 정권 말기가 그렇고 암말기가 그렇듯이, 말기 때는 한꺼번에 터지거나 붕괴되기도 한다. 지금이 말기 상황이다. 정권 말기마다 구린내가 심하지만 이번 정권은 참으로 가관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의 절대 권력이 망했듯이 이번 이명박 정부는 민생을 이렇게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았는가? 우리가 역사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역사 말기의 경우는 어떨까? 로마의 쇠락으로 나타난 어두운 세기에 이루어진 중세 그리스도교의 출현에는 예수가 구원투수였다. 이렇듯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역사의 구원투수가 있었다. 역사의 말기 때마다 등장한 그 사람들은 삼국시대 말의 원효, 고려 말의 일연, 조선 말의 최제우 그리고 현대 말의 장일순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해석이다. 한 번도 상봉하지 못한 이 네 분의 구원투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줄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인도에 있는 깨달음은 이 네 분의 탄생지에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 멀리 성지순례를 가는가? 인도에도 무

엇인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진리다. 성지는 우리 가운데에 있다.

삼국의 한 부족이 직면한 삼국통일 말기의 위기를 통찰한 원효(617~686) 시대의 위기와 우리가 직면한 행정 차원의 위기는 그 범주나 차원이 다르다. 한 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종(種)의 수준'에서 지금처럼 전 인류가 이렇게 결정적인 때는 없었다. 인간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우리가 행성 지구의 생명 체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 가능성도 의문이다. 원효는 김춘추의 정치적 꿈수에 넘어갔는지 혹은 신라의 삼국통일 앞에서 어린 화랑의 죽음 제단을 비통해 한 어머니들의 아픔을 요석공주와의 만남을 통해 원효 자신이 저자거리의 거사로 육화한 방법은 화쟁(和爭)이었다. 요즈음 말로 “평화 생태”라는 뜻이다. 원효는 화쟁으로 삼국통일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화쟁으로 전 지구촌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추기경 시절과는 달리 “평화 생태학”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절박하게 호소한 담화문이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라!”였다.

일연(1206~1289) 스님은 고려 시대를 구한 새로운 이야기인 『삼국유사』를 우리에게 남겼다. 고려 시대 내적인 항쟁인 무신 정권의 문화적 암흑기에 매몰된 고려 사회는 외적인 항쟁인, 고종(高宗) 18년 이래 계속된 몽고의 야만적인 침략과 지배로 인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환란인 몽고족의 침입을 겪게 된다. 그리고 원(元)의 간

정홍규 신부(대구대교구), 1981년 사제품을 받았다. 산자연학교 교장, 푸른평화 대표를 맡고 있다. 역서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있고, 힐데가르트의 삶과 영성을 조명한 『세계와 인간』(울렛컨텐츠, 2011)을 기획·감수했으며 칼럼집 『오산에서 온 편지』(학이사, 2012)를 펴냈다.

섭을 받기 시작한 뒤를 이어 고려에 강요된 일본 정벌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부담까지 겹쳤다. 30여 년간의 항전과 몽고 지배로 인해 한반도는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몽고를 상대로 한 민족의 대항전 속에서 민족의 자의식이 더욱 발전적으로 심화되어 민족 이야기인 삼국유사를 낳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의 구원의 역사적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 이야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킨 변화는 그 성격과 규모 면에서 현대 인류가 약 6만 년 전 출현한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날마다 1분에 약 20만 평방미터씩 열대우림을 쓸어내리고 있다. 토양 유실, 기후 변화, 핵발전소, 식량 위기 등 한 부족, 한 나라, 한 대륙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 공동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생태 위기의 문제다. 일연의 새로운 민족 이야기가 삼국유사로 탄생한 것처럼 지금은 우주 전체의 이야기 즉 별의 이야기, 은하 이야기, 지구 이야기, 생명 이야기, 인간 이야기를 담은 137억 년의 우주 전체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다.

유불선을 통합하고 동학까지도 통섭한 장일순(1928~1994)은 “일완지식 함천지인(一碗之食 含天地人), 밥 한 그릇 속에 우주가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베리(1914~2009) 신부는 1978년에 새로운 이야기 즉 “우주 이야기”를 창안하였다. 고려를 구한 ‘삼국유사’, 이집트의 이스라엘을 구한 ‘모세 5경’ 이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지구 전체의 종을 구원하는 새로운 이야기, 우주 이야기가 요청된다. 토마스 베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파국을 견뎌낼 수 있고,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우주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이 이 지구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

우주 빅뱅을 창안한 르메트르 신부(1894~

1966)와 아인슈타인은 서로 만난 적이 있지만 장일순과 토마스 베리는 동시대를 살면서도 만난 적은 없다. 그러나 두 분은 종(種)의 차원에서 신생대 말기에서 새로운 “생태대”(ecozoic) 언어를 창안하였다. 새로운 종교를 발명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연처럼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처럼 생명에 대한 혹은 행성 지구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을 창안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가하는 무한한 고통을 무한정 견딜 수 없기에 우리는 자연 세계의 신적 방향에 순명하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피크오일(peak oil)처럼 궁극적 명령이다.

서학에 맞선 동학!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보다 더 혁명적인 동학의 인내천 영성은 천지인과 시천주로 포용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서학은 누구이며 동학은 어디에 있는가? 이 동학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분이 장일순이며 이 해석을 우리 시대 말로 널리 선교한 분이 김지하이다.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의 은혜를 김지하가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4대강 두물머리에서 미사를 하는 사람들, 강정에서 죽으라고 맞서는 사람들, 핵발전소 앞에 맞서는 그린피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위한 동학군이다. 종교가 이 시대의 구원투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시대의 공해가 되고 있다. 지난 부활절 전야 미사 때 우리 추기경님은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4대강 문제도 그렇게 하시더니만.

21세기 종교의 역할은 새로운 탈출 엑서더스(exodus) 즉 해방을 그리며 신음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 즉 함께 아파함의 ‘공감’에는 지구의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다.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에티튜드(attitude)에 달려 있다. 